

1세대 랩퍼 소환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제2의 양준일 예고

힙합 팬 레트로 감성 소환할 아재 래퍼들의 리얼리티 경연 프로그램

'1999대한민국 컴필레이션 앨범' 잇는 과정 그려...여성 랩퍼는 無

1세대 래퍼들을 소환한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가 제2의 양준일 탄생을 예고해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25일 오전 엠넷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제작발표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는 힙합 팬들의 레트로 감성을 소환할 아재 래퍼들의 리얼리티 경연 프로그램이다. 아재 래퍼들이 각종 미션을 통해 '1999 대한민국 컴필레이션 앨범'을 잇는 '2020 대한민국 컴필레이션 앨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린다. 황성호 PD는 "1세대 래퍼들과 함께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해 기대감을 높였다.

이현배·박재진(45RPM), 디기리·영풍(하니패밀리), 안키, 비즈니즈·남업산(인피니트로우) 등이 출연, 1세대 레전드 래퍼들이 소환됐다. 디기리는 "한국 힙합을 함께 시작할 래퍼들과 모여서 뜻깊고 기쁘다. 동창회를 하는 느낌으로 유쾌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

며, 더블케이이는 "정말 재밌게 촬영하고 있다. 보통 경연이라고 하면 치열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서로 으샤으샤 하고 있다"라고 귀땀했다. 이현배는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가 올 줄 몰랐는데 좋은 기회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래퍼 선정 기준은 무엇이였을까. 황 PD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활동한 1세대 래퍼들, 지금처럼 힙합이 붐이 아니었을 때 비주류 문화였을 때 힙합을 한 분들 위주로 선정했다. 지금 TV에서 볼 수 없던 분들, 지금 래퍼들과는 다른 가사를 쓰는 분들을 모시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여성 래퍼는 섭외 후보에 없었을까. 황 PD는 "미로, 윤미래, 하니패밀리 여성 멤버 등의 섭외를 고려했지만 내 생각에 우리 프로그램과 다른 그런 느낌이 있었다"며 라인업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엠넷에서는 '쇼미더머니', '언프리티 랩스타', '고등래퍼' 등 힙합 프로그램을 방송해 큰 인기를 얻었다. 이 시리즈들과 차별화된 매력은 뭘까.

황 PD는 "우리 프로그램에는 예전에 한국 힙합을 개척했던 분들이 나온다. 이 분들의 매력을 보여줄 것이다. 엠넷에 '쇼미더머니', '고등래퍼', '언프리티 랩스타' 등 힙합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우리 방송이 엠넷 스타일의 추억을 소환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다"며 "1세대 래퍼들의 오랜 경력을 무시할 수 없다. 재미와 감동을 통해 추억 소환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병재는 "우리만의 전함이 있다. 아재 래퍼들의 나이를 합하면 500살이다. 우리 프로그램 목표 중 하나가 (1세대 래퍼가) 올드가 아닌 클래식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는 매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힙합 장르가 큰 인기를 얻



고 있는 것에 대한 1세대 래퍼들의 생각은 어떨까. 디기리는 "우리 때는 힙합이 인기 있는 장르는 아니었다. 당시 뿌린 씨앗이 지금 열매를 얻 것 같다. 어린 친구들이 잘 해주고 있다. 우리가 밑거름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라고 말했다. MC 이홍진은 프로그램에 대해 "금요일 저녁에 치맥하면서 보면 당시 추억을 소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으며, 유병재는 "힙합 팬인 나는 사심방송을 하고 있다. 이 마음이 시청자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

고 했다. 마지막으로 황 PD는 "방송을 통해 '제2의 양준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해 방송에 대해 더욱 기대하게 했다. 한편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는 오는 28일 오후 11시 처음 방송된다.

방탄소년단 '맵 오브 더 솔:7', 美 빌보드200 1위 유력

내일까지 미국서 30만 포인트 가량 앨범 수치 전망



미국 빌보드가 방탄소년단의 '빌보드200' 네 번째 1위를 확실 시켰다. 빌보드는 25일(한국시간) "방탄소년단이 '맵 오브 더 솔:7'"

(MAP OF THE SOUL : 7)이 앨범 차트 '빌보드200'에서 1위로 데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빌보드에 따르면 지난 21일 발

매된 이번 앨범은 한 주 차트 집계 끝나는 오는 27일까지 미국에서 30만 포인트 가량의 앨범 수치를 얻을 전망이다. 점수 대부분은 음반 판매량이다.

특히 빌보드는 앞서 전작인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가 20만~22만5000 포인트의 앨범 수치를 예상하며 '빌보드200' 1위를 전망했는데, 이번 포인트는 이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방탄소년단은 앞서 지난 2018년 6월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와 그해 9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 지난해 4월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로 앨범 차트 1위에 오른 바 있다.

한편 이번 차트는 3월7일 자 차트로, 오는 3월1일 빌보드 웹사이트를 통해 상위 10위 순위 먼저 공개될 예정이다.

'결혼' 김경진 "전수민에 먼저 대시...자상한 남편 될 것"

"LJ 형 지인 모임서 눈에 띄게 예뻐"



개그맨 김경진이 오는 6월27일 품절남이 된다. 예비신부는 1년 6개월간 교제해온 7세 연하의 모델 전수민이다.

김경진은 25일 뉴스1에 "결혼하게 돼서 정말 좋다. 평생 결혼도 못하고 노총각으로 살 줄 알았는데 예쁜 신부와 결혼하게 돼서 너무 좋다"고 기쁜 소감을 전했다.

두 사람은 지인과의 모임에서 처음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다. 김경진은 "수민이와는 지인들 모임에서 만나게 됐다. LJ 형

의 지인으로 모임을 가졌었는데 수민이가 키도 크고 눈에 띄게 예뻐더라. 제가 먼저 다가갔다"고 고백했다.

프러포즈는 김경진이 먼저 했다. 그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하자고 먼저 얘기했다. 신부도 좋았나보더라"며 "하루는 동네 형인 지상렬 형님과 같이 밥을 먹는데 형이 '(수민이가) 너무 괜찮다'고 꼭 결혼해야 한다, 너 형처럼 살 거냐고 하시더라. 그래서 '더 결혼해야겠다'

고 결심한 것 같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경진은 "현재 낚시 방송에만 고정 출연 중이다. 앞으로 더 많은 방송에 출연하고 싶다"며 "현재 제가 트로트 그룹을 하나 운영 중이다. 신하라는 그룹인데 '운수대통'이라는 노래를 발표한 적이 있다. 요즘 트로트가 핫한데 두 번째 노래는 수민이를 위한 프러포즈 송으로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경진은 2007년 MBC 16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뒤 남다른 입담과 예능감으로 연예계에서 활약해왔다. 또한 가수로도 활동했으며 MBC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에서 배우로도 출연하기도 했다. 현재 유튜브 채널 '김경진 TV'를 운영 중이다.

모델 전수민은 2008년 제인송 컬렉션 모델로 모델계에 입문했다. 서울컬렉션 송자민, 준지, 진태옥, 디올, 루이비통, 버버리 등 다수 패션쇼에서 경력을 쌓았다. 현재 필라테스 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강다니엘 측 "악플러 1차 고소 벌금형 처분, 2차 수사 중"

"악성 게시물 정기적 형사고소 등 멈추지 않을 것"

가수 강다니엘 측이 악플러 고소와 관련해 진행 상황을 밝혔다. 강다니엘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이먼트는 지난 2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강다니엘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 성희롱, 명예훼손, 인신공격, 사생활 침해 등의 악성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 관련 24일 자 진행 상황 알려드린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지난해 9월 1차로 선별해 진행한 건은 '벌금형 약식 기소'로 처분 완료됐으며, 12월 진행한 2차 건은 고소인 진술 완료해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진전된 수사 진행 상황은 추후 다시 공유드리겠습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을 비방할 목적의 상습적, 악질적 악성 게시물에 대



한 정기적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등의 민·형사상의 모든 제반 조치를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다니엘 측은 악플러들에 대해 고소를 진행해왔다.

'지푸라기' 2만명 · '작은 아씨들' 8천명 극장가 '코로나19' 직격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극장가가 얼어붙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 따르면 지난 24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은 2만2698명을 불러모았다. 누적 관객수는 39만2475명이다.

이어 박스오피스 2위는 아카데미 주요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려 많은 기대를 받은 '1917'이

다. 1만9387명이 관람했다. 라미란 주연의 '정직한 후보'는 1만3519명이, '작은 아씨들'은 8802명이 봤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극장가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개봉작들은 힘겨운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는 개봉 예정작에도 영향을 미쳐서, '사랑의 시간', '칼', '결백' 등은 개봉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임백천 "벌써 데뷔 42년, 6년은 건축기사로 일해"

KBS 1TV '아침마당' 게스트 출연해 입담 뽐내



방송인 임백천이 데뷔 42년을 맞이한 소감을 밝혔다.

임백천은 25일 오전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에 게스트

로 출연해 입담을 뽐냈다. 이날 임백천은 "78년도에 데뷔했는데, 올해 벌써 42년이다. 사실 거기서 6년은 빼야 한다. 제가 건설회사에서 건축기사로 일했다. 그랜 지하철 역사도 있고, 올림픽 경기장도 그렇고 열심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건축은 종합예술이다"라며 "그런데 건축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쉽게 먹고 살 게 없을까 했고, 대학교 때 방송했지 하고 했는데 방송이 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인생 모토는 가능하고 길게, 쉬운 낙엽이다"라며 "굵고 길게 사는 건 능력이 안 되어서 어렵다"고 덧붙였다.